

캠핑·노래방... 예능주연 퀘찬 車

언택트 열풍에 차 주제 방송 증가
새로운 방식의 안전한 즐거움 선사
방송 통해 색다른 휴가 트렌드 제시

자동차가 방송이 주연으로 떠올랐다. '비대면(언택트)' 바람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와 '차박' 등 자동차를 주제로 한 방송이 크게 늘어나면서다.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안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데다, 새로운 휴가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이다.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는 단연 쉐보레다. 최근 출시한 트래버스와 콜로라도, 트레일 블레이저 등 SUV 라인업을 앞세워 다양한 예능 방송에 노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송은 tvN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이다. 이 방송은 카라반을 연결한 트래버스를 타고 전국을 유랑하는 내용으로, 트래버스 외관과 실내 공간 활용, 카라반을 견인하고 운전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배우 성동일과 김희원, 여진구를 고정 출연자로 출연하며 매회 게스트도 초청되지만, 사실상 트래버스가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다.

트래버스는 이 방송을 통해 높은 견인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가솔린 엔진으로도 무거운 카라반을 끌고 무리 없이 달리면서다. 기본 2.2t(톤) 견인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

콜로라도도 지난 4월 tvN '유퀴즈 온



tvN 예능 '바퀴 달린 집'에 노출된 쉐보레 트래버스. /tvN 방송 캡처



MBN 예능 프로그램 '드루와'에는 다양한 차들이 등장한다. /MBN

더 블록'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출연자인 유재석과 조세호를 태우고 '드라이브 스루 먹방'을 찍은 것. 콜로라도의 장점인 주행 성능과 적재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시청자들에게 미국식 정통 픽업트럭을 소개하는데 충분했다는 평가다.

쉐보레 SUV 라인업 인기는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으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트래버스는 캠핑이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차박' 인기 차종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트레일 블레이저가 합리적인 차박 모델로 여러 채널에 등장하며 실제 판매량 증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제네시스는 드라이브 스루 콘서트를 담은 '비긴어게인'에 방청객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긴어게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된 드라이브 스루 버스킹 프로그램으로, 현대차는 공

익에 초점을 두고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제네시스는 단순히 방청객을 태우고 공연장에 서있는 역할에 불과하지만, 시청자들에 외관 디자인을 어필하는데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거뒀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MBN의 새 예능 '드루와'는 따로 특별한 브랜드에 협찬을 받고 있지 않지만, '드라이브 스루 노래방'이라는 콘셉트로 인해 다양한 국내의 차량들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트레일 블레이저는 상품을 소개하는 차량으로 선택되면서 의도치 않게 신차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언택트 열풍이 자동차를 예능 프로그램 주인공으로 만들 어준데다가, 시청자들도 늘어나면서 PPL 효과가 대폭 상승했다"며 "구체적으로 판매량 증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방송을 보고 차량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는 분명히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키오스크로 상담·셀프개통 이통3사, 무인화 매장 '속속'

LGU+ 10월 무인화 매장 도입
탐색-상담-개통 과정 비대면 처리
SKT 10월까지 무인화매장 시범운영
KT 판매 제외 셀프 키오스크 사용

LG유플러스의 5G 모바일 요금제를 사용하고자 신규가입을 하려는 A씨는 '언택트 매장'을 찾았다. 매장 안에 있는 '유심키오스크'에 신용카드를 넣어 데이터 사용량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하고, 직원의 도움 없이 개통을 마무리하는 '셀프개통'을 했다.



LG유플러스 언택트 매장에 비치될 키오스크의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 서울 종로구에 '언택트 매장'과 '새로운 체험형 매장'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속화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 타이통사들도 이 같이 언택트 시대에 맞춘 무인화 매장 도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언택트 매장에서는 고객의 탐색-상담-개통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무인화를 추진하고, 고객이 '셀프개통'을 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언택트 매장의 특징은 키오스크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9월까지 유심(USIM) 무인판매, 셀프 고객센터(CS), 고객경험관리 등의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선보일 체

험형 매장에서는 상권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구 고객 세그먼트의 특성이 뚜렷한 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장 내 체험존은 고객 세그먼트별 전문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며, '언택트 체험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뿐 아니라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도 무인화 매장 도입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도 오는 10월 서울 홍대점에 '셀프 체크인'이 마련된 무인매장을 열고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KT는 휴대폰 판매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 키오스크를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향후에는 언택트 및 서비스 체험에 특화된 플래그십 매장 오픈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직관적 실내·탁월한 응답성... "운전 쉽네"



렉서스 'RX 450hL'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 적용
3.5L V6 엔진, 최고출력 262마력
전기모터 더할 시 총 출력 313마력



렉서스 RX 450hL.

'운전자 편안하게 주행을 이어갈 수 있는 차.'

렉서스의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RX 450hL'을 만난 느낌이다.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은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적용해 젊은 운전자도 차량에 적응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위치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공조장치를 설정하고 미디어 환경을 컨트롤하는 불편함도 따른다. 물론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편리하지만 주행중 설정하는건 번거롭긴 하다.

RX 450hL는 실내 기능을 직관적으로 설치한 반면, 첨단기능도 적용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실내는 숙련된 장인의 공정을 거친 나무, 가죽, 금속 소재를 인테리어에 사용해 프리미엄 SUV만의 감성품질을 느낄 수 있으며, 차량 실내 곳곳의 간접조명으로 탑승자에 대한 환대를 표현했다. 또 차량 내부의 다양한 버튼과 공조 장치도

직관적이라 편리했다.

시승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커넥트루를 출발해 포천 고모리 저수지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10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주행 성능은 렉서스에 대한 기대감을 만족시켰다. RX 450hL은 3.5L V6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62마력에 최대토크는 34.2kg·m이다. 전기모터까지 더하면 시스템 총출력은 313마력이다. 고속 구간에서 RX 450hL은 안정적으로 부드러운 주행을 이어갔다.

특히 RX 450hL은 액티브 코너링 어시스트(ACA)를 새롭게 도입해 구불구불한 길에서도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 또 허브 베어링의 강성을 향상시켜 응답성을 높이고 리어 스테빌라이저로

코너링 시 언더스티어 현상과 좌우 출렁거림이 최소화 됐음을 느낄 수 있다.

아쉬운 부분은 실내 공간이다. RX 450hL은 3열을 추가했지만 RX 450h와 크기는 비슷하다. 기존 RX 대비 전장이 110mm 길어진 5000mm에 전고는 15mm 높아져 1720mm였다. 전폭은 1895mm로 동일했다. 이 때문에 3열의 공간 확보는 아쉬웠다.

렉서스 RX 450hL의 가장 큰 매력은 연비다. 경쟁 준대형 SUV의 경우 공인 복합연비가 10km/L인 반면 RX 450hL은 12.3km/L로 높다.

실제 도심과 고속도로를 주행한 결과 연비는 14.3km/L로 공인 연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RX 450hL의 가격은 9527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KT, 레벨4 자율주행차량 기술연구 박차

한국자동차연구원과 MOU
기술 테스트·인력 교류 등



한국자동차연구원 허남용 원장(왼쪽)과 KT AI/DX융합사업부부장 전홍범 부사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KT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자율주행 핵심기술 연구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위는 ▲자율주행 핵심기술 및 C-ITS ▲차량, 도로, 교통신호 체계 등을 연결하는 차량 통신 기술 5G-V2X ▲데이터 사이언스 및 인공지능(AI) 영역이다.

이번 MOU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기술 개발, 검증 및 실증 테스트, 전문 인력 교류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KT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레벨4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자율주행 환경에서

의 서비스 발굴을 협력하기로 했다.

KT는 V2X 통신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인 '5G 모빌리티 메이커스' 및 정밀측위 솔루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과 도로인프라에 대한 위치 및 상태 모니터링, 원격제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한화에어로-신한銀, 100억 규모 상생펀드 조성

중소 협력사에 금융지원 기회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2일 신한은행과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 산업은행에 이은 세 번째이며 이로써 상생펀드의 총 규모는 340억원이 됐다. 펀드의 대출을 받는 협력

사는 최대 2.58%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량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2년부터 상생펀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기술 지원, 성과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